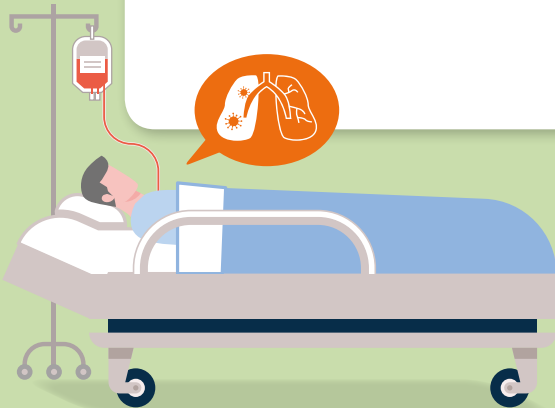


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?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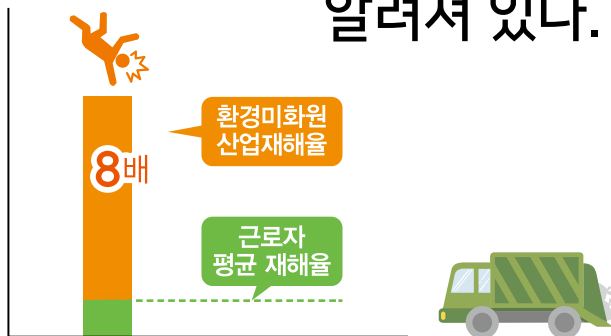
2018년 11월,
20년 넘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
폐암에 걸린 순천의 환경미화원
두 명의 산업재해가 인정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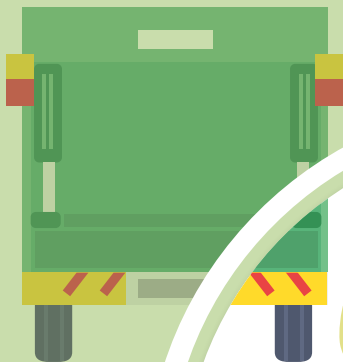


일의 특성상 매일 디젤엔진
배기가스에 노출되며, 종량제
도입 전까지 폐슬레이트와
연탄재를 수거하며 **유해물질에
노출되었기 때문이다.**



우리나라 환경미화원의
산업재해율은 근로자
평균 재해율보다
약 8배가 높은 것으로
알려져 있다.





하지만

환경미화원의 **작업환경과**
안전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한
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
않았다.



연구자들은 환경미화원의
실태를 파악하기 위해
미세분진과 디젤엔진 배출물 등
유해물질 노출 현황을 조사했다.



조사 결과
미세분진(PM2.5)노출은
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
기준보다 매우 높게
나타났다.





환경미화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

- ☑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
일반인에 비하여 치료를
잘 받지 못하는 것으로
나타났다.



환경미화원의
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
수거차량을 **최신 디젤차량이나
친환경 차량으로 교체**하는
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.

최신 디젤차량

친환경 차량





연구진들은 환경미화원을
위한 **특수건강진단 실시와**
건강진단 후 관리강화 방안도
제안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
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고
주장했다.

출처

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
(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18)

※ 본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